

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
최종 회의

부위원장 모두발언

2019. 1. 24.

금융위원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1. 인사 말씀

- 반갑습니다.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입니다.
 - 바쁘신 와중에도 지난 4개월 간의 작업을 마무리하는 TF에 참석해 주신 기획재정부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각 연구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 - 이번 TF를 통해 다룬 “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” 분야는
 - 그동안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입니다.
 - ‘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국내의 노력은 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.
 - *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, 유동성관리 강화, SIFI 지정 등 시행
 - 그러나, 최근 들어 은행권 규제 강화에 따른 비은행권으로의 자금 이동, 저금리 하에서 고위험·고수익 추구 성향, 보험·연금 규모의 증가 등으로 비은행권 비중은 계속 커져 왔습니다.
 - 이에 국제적으로도 IMF, FSB, 미국·유럽의 금융안정기구 등을 중심으로 비은행권을 주목하고 있으며,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
- ▶ IMF :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에 초점을 둔 스트레스테스트 체계 개발중
 - ▶ FSB(금융안정위원회) : 비은행금융중개로 유발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을 권고
 - ▶ ESRB(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) :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규제체계·수단 마련 추진
- 이번 TF는 정부, 중앙은행, 감독기관, 민간 전문가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, 새로운 틀을 통해 비은행권을 조망해 볼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봅니다.

2. 비은행권 관리 필요성

- 비은행권은 금융심화(financial deepening)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규모가 커지고 다변화되어 왔습니다.
- 비은행권은 은행권을 보완하여 신용증개기능을 수행하면서 금융시장내 경쟁을 촉진하고 실물경제를 지원해 왔습니다.
 - 전형적인 예금-대출 영업에서 벗어나, 새로운 투자기법과 금융증개를 시도하여 혁신을 주도해 온 영역도 비은행권입니다.
- 반면, 비은행권은 고수익·고위험 추구, 복잡한 거래 형태와 높은 상호연계성 등의 속성으로 인해,
 - 리스크 요인이 언제든지 싹을 틔울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.
- 비은행권을 주목하고 적절히 관리해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.
- 그러나,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.
- 지난해 9월, TF Kick-off 회의 당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,
 - 비은행권은 ①거래행위와 시장참가자가 다양하고, ②특유의 리스크 증폭·전파 요인, ③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호연계성으로 인해, 적절한 접근법을 찾고 심층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.
 - 시스템리스크 유발 소지가 있는 비은행권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정형화된 접근 방법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

3. 기본 추진방향

□ 금번 TF에서는 비은행권 분야를 금융중개 행위(activity), 비은행 금융회사(entity)의 두 방향에서 접근·검토해 보았습니다.

① 우선, 행위 측면에서는 소위 '그림자금융'으로 지칭되어 온 고위험 비은행금융중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.

-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중개하는 행위, 환매에 취약한 펀드 투자 등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.

② 기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회사가 지닌 특유의 취약점을 중점 진단해 보았습니다.

- 과거 위기를 초래했던 환리스크가 누적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, 증권사들의 ELS 발행 현황 등도 살펴보았습니다.

□ 그 결과, 당장 현실화될 리스크 요인은 현재로서는 없지만, 일부 금융중개 행위와 비은행 금융업 부분의 경우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
○ 혁신적인 투자기법 대신 단기 레버리지 자금을 활용하여 스프레드를 수취하면서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.

○ RP거래 등 금융중개시 담보와 거래상대방 위험도에 따라 거래비용을 차별화해야 하는 '시장규율'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

○ 외환시장, 해외 주식시장 변동으로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하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었습니다.

- 금융유관기관의 세밀한 정보수집 체계가 아직 구비되지 못한 비은행권 금융거래 영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- 또한, 은행권과 달리, 글로벌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권고된 수단들을 국내 상황에 맞추어 도입하려는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왔습니다.

4. 방안 주요내용

- 이와 같은 접근 방향과 문제 인식하에 TF 논의를 거쳐 「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 - 행위 측면의 5가지 부문, 기관 측면의 5가지 부문을 다루어 보았으며,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.
- ① 우선, 비은행 금융중개(activity)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.
 - ① RP자금을 차입하는 기관에 대하여 차입 규모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자산으로 보유(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)하도록 하고,
 - RP 만기가 짧을수록 그 비율을 높여 익일물 비중을 줄이고 기일물 비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.
 - 일률적인 헤어컷 부과 관행을 해소하고자 담보증권 특성과 차입자 신용위험에 따라 최소증거금율을 차등화하도록 유도하여 RP시장의 채권·거래상대방 선별 기능을 제고하겠습니다.
 - ② 가격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관리가 쉽지 않은 일부 법인형 MMF 유형*의 경우 “시가평가”를 도입하여
 - 기관투자자들이 시장불안시 빨리 자금을 회수하려는 유인(first mover advantage), 펀드런 소지를 줄여 나가하고자 합니다.

* 국채, 통안채, 은행예금 등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% 이하인 법인 MMF

② 또한, 대내외 시장여건에 비은행 금융회사(entity)가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① 파생결합증권이 변동성이 높은 기초자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관리지표(변동성가중자산비율)를 도입·운용하겠습니다.

- 지난 '16년에도 홍콩 H-지수 급락으로 ELS 발행 증권사들과 투자자들의 혼선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.

- 관리지표를 통해 특정지수의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영향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.

② 보험사의 외화증권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환헤지 만기가 짧아지면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차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,

- 보험사의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, 환헤지 만기가 편중되지 않도록 자본규제 등을 개선하겠습니다.

③ 마지막으로,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효율적으로 '식별→분석→대응'하는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
① 금융유관기관,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'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'를 신설·운영하겠습니다.

- 주기적으로 잠재 위험요인을 공동으로 분석·평가하고, 관련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는 기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.

② 잠재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조치 제도를 도입하고, 금융안정기금을 정비하겠습니다.

5. 마무리 말씀

- 이번 방안은 시스템리스크라는 금융시장내 ‘전염병’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‘예방접종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- 대부분 사람들이 면역체계를 갖춘 집단면역(herd immunity) 상태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해도 단시일에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- 금번 방안에 담긴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,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취약요인을 계속 발굴·조치해 나간다면,
 - 금융시장내 위험 발생·증폭 소지를 줄이고 ‘집단면역 체계’를 확립하여 금융안정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- 금번 방안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익이 줄어드는 업권이나 거래행위도 불가피하게 있을 것입니다.
 - 그러나, 금번 조치들은 “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졌거나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부문을 점점”한 결과물로,
 - 개별회사 입장과 달리, 여러 전문가들이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위험요소를 선별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앞으로 세부적인 제도설계와 시행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, 유예기간도 부여하여 개별 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드릴 것입니다.
-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응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가 과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소중한 교훈입니다.
 - 정부는 오늘 대응방안 마련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물샐틈없는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